

1991년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1월분 6백2만8천7백31㎡보다 24.40%(1백47만9백78㎡) 증가한 7백49만9천7백9㎡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월분 합계 6백2만8천7백31㎡보다 24.40%(1백47만9백78㎡) 증가한 7백49만9천7백9㎡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12월분 1천3백83만6천1백97㎡보다 45.80%(6백33만6천4백88㎡) 감소한 7백49만9천7백9㎡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 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0년도	1991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191,295	1,278,698	87,403	7.34%
	대구지부	207,706	440,761	233,055	112.20%
	인천지부	222,378	888,405	666,027	299.50%
	대전지부	187,640	351,375	163,735	87.26%
	경기지부	1,215,896	1,253,019	37,123	3.05%
	강원지부	87,326	128,989	41,663	47.71%
	충북지부	119,799	293,672	173,873	145.14%
	충남지부	134,045	184,670	50,625	37.77%
	전남지부	173,876	234,439	60,563	34.83%
	경북지부	346,473	435,625	89,152	25.73%
	경남지부	758,993	764,558	5,565	0.73%
	제주지부	47,381	82,987	35,606	75.15%
감소지역	부산지부	870,110	814,952	(55,158)	-6.34%
	광주지부	316,805	219,351	(97,454)	-30.76%
	전북지부	149,008	128,208	(20,800)	-13.96%
합 계	6,028,731	7,499,709	1,470,978	24.40%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 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종 별	12월분	1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588,105	765,239	177,134	30.12%
다 세 대 주 택	453,081	510,125	57,044	12.59%
연 립 주 택	308,212	149,924	(158,288)	-51.36%
아 파 트	7,172,784	1,920,970	(5,251,814)	-73.22%
근린생활시설	1,775,227	1,475,767	(299,460)	-16.87%
종 교 시 설	52,754	55,861	3,107	5.89%
의 료 시 설	29,425	92,637	63,212	214.82%
교육연구시설	202,892	82,953	(119,939)	-59.11%
업 무 시 설	1,280,533	625,189	(655,344)	-51.18%
숙 박 시 설	58,855	81,185	22,330	37.94%
공 장	1,031,577	976,999	(54,578)	-5.29%
기 타	882,752	762,860	(119,892)	-13.58%
계	13,836,197	7,499,709	(6,336,488)	-45.8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4,086	4,156	738,054	462	483	23,638	46	46	3,547	4,594	4,685	765,239
다 세 대 주 택	1,003	1,114	506,023	26	26	2,830	9	14	1,272	1,038	1,154	510,125
연 립 주 택	83	134	148,313	2	2	775	2	2	836	87	138	149,924
아 파 트	129	464	1,864,840	11	17	54,022	4	4	2,108	144	485	1,920,970
근린생활시설	2,699	2,802	1,354,903	277	291	59,946	204	205	60,918	3,180	3,298	1,475,767
종 교 시 설	48	64	50,303	21	24	4,887	5	7	671	74	95	55,861
의 료 시 설	7	9	86,604	2	2	5,846	1	1	187	10	12	92,637
교육연구시설	22	29	60,593	16	20	17,056	21	21	5,304	59	70	82,953
업 무 시 설	111	126	599,519	28	31	22,195	5	5	3,475	144	162	625,189
숙 박 시 설	15	18	32,990	13	33	27,606	9	9	20,589	37	60	81,185
공 장	461	756	711,194	201	315	239,077	41	43	26,728	703	1,114	976,999
기 타	497	668	570,555	165	192	84,826	32	34	107,479	694	894	762,860
합 계	9,161	10,340	6,723,891	1,224	1,436	542,704	379	391	233,114	10,764	12,167	7,499,709

支部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지부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서울지부	2,523	2,570	1,260,634	52	56	18,064	0	0	0	2,575	2,626	1,278,698
부산지부	960	1,185	758,060	122	142	44,172	41	42	12,720	1,123	1,369	814,952
대구지부	483	517	414,272	332	354	17,702	26	26	8,787	841	897	440,761
인천지부	523	668	835,412	16	30	48,045	15	16	4,948	554	714	888,405
광주지부	222	244	189,906	40	41	28,109	9	9	1,336	271	294	219,351
대전지부	235	269	327,204	22	22	11,307	57	62	12,864	314	353	351,375
경기지부	1,465	1,626	1,069,093	91	101	41,391	76	76	142,535	1,632	1,803	1,253,019
강원지부	220	255	105,667	40	44	21,092	9	9	2,230	269	308	128,989
충북지부	304	370	235,855	42	83	52,391	27	27	5,426	373	480	293,672
충남지부	226	243	165,398	46	46	17,134	21	21	2,138	293	310	184,670
전북지부	129	159	107,293	34	42	13,778	32	34	7,137	195	235	128,208
전남지부	371	439	158,792	101	124	69,704	28	29	5,943	500	592	234,439
경북지부	398	468	305,976	96	127	108,722	14	14	20,927	508	609	435,625
경남지부	943	1,138	713,243	137	171	45,192	24	26	6,123	1,104	1,335	764,558
제주지부	159	189	77,086	53	53	5,901	0	0	0	212	242	82,987
합 계	9,161	10,340	6,723,891	1,224	1,436	542,704	379	391	233,114	10,764	12,167	7,499,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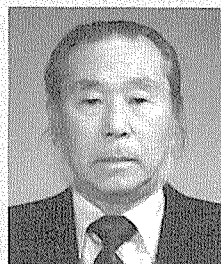
會員動情

崔昌奎회원 別世

서울지부 崔昌奎회원(건축사사무소 신진 대표)이 지난 18일 老患으로 別世하였다.

享年 75세의 故崔昌奎회원은 1957년 신진건축설계사무소 開設 이래 韓國建築家協會會長을 역임(72~74년)하는 한편 「건축과 주변」, 「건축 단상」등의 저서를 통한 建築에 대한 熱情으로 건축계의 존경을 받는 한편 '88년 제1회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故 崔昌奎회원의 영결식은 지난 20일 한양대 부속병원 영안실에서 한국건축가협회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어 경기도 장호원에 유해가 안치되었다.



故 崔昌奎회원

■ 약력

- 1919년 함경남도 영흥군 生
- 1941년 동경 홍아 고등공민학교 건축과 졸업
- 1957년 신진건축설계사무소 설립
- 1972~74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역임
- 1988년 제1회 문화예술대상 수상

崔昌奎兄 영전에

人生이 덧없는줄 알기는 해도
이렇듯 虛妄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엇그제 했던 約束은 어떻게 하고
혼자 훌쩍 가버리면 어떻게 하오

좋은 세월 만나서 함부로 떠나는 기쁨.
不義와 非理를 참지 못하던 칼 같은 성미
그러면서 막걸리 같이 텅텅하고 多情스럽던 마음씨
아직도 그 너털웃음소리가 귀에 익은데
이젠 불러봐도 대답은 없을 터이고
언제나 가슴을 텅 비워 놓고
가장 소탈한 보통사람으로 살다간 당신은

지금 보통席에 앉아서 훨훨 하늘나라로 가고 있겠지.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웬 불만은 그렇게 많고
교회에는 왜그리 만나왔었느냐고, 꾸짖으실거야

崔兄, 이젠 들리지도 않겠지?
잘가라고 외치는 소리.
먼저 가 있으라고 외치는 소리

- 吊辭를 대신해서

韓昌鎭
(주)한정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